

## 『전경』과 『태평경』의 사회이상에 대한 비교 연구

리하이린(李海林)\*

중국서남민족대학 · 강사

- I. 사회이상 - ‘태평세도’와 ‘후천선경’      III. 맺음말  
II. 구세지도 - ‘해승부’와 ‘해원상생’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의식이 풍족하며, 전쟁과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해 왔다. 특히 전쟁이 빈번히 발발하고 천재와 인재가 잦은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동한은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의 하나였다. 이러한 시기에 쓰여진 『태평경』<sup>1)</sup>은 도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인데 ‘태평세도(太平世道)’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평경』의 종교적 이상은 당시 사람들의 절박한 바람을 확연히 드러낸다.

한국의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은 강일순 성사께서 인세에 강림하신 내용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대순진리회에서는 『전경』을 기본적인 경전으로 삼고 있다. 증산께서 생존했던 시기는 조정이 부패하고 사회 전체가 동란 중에 있었다. 증산께서는 ‘해원상생’이라는 구제의

\* 남(男), 한족(漢族), 광둥산두인(廣東汕頭人), 철학박사, 서남민족대학 정치학부 강사.

1) 『태평청령서(太平淸領書)』, 즉 『태평경(太平經)』에는 작가와 집필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책의 유래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므로 본문에서는 왕명(王明)이 편집한 『태평경합교(太平經合校)』(북경: 중화서국, 1960) 판본을 사용하였다. 이하 『태평경』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방법을 통해, ‘후천선경’ 혹은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하셨는데, 이는 당시 민중의 심리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후 대순진리회에서는 ‘후천선경’을 이루는 것을 종단의 목표로 삼고 있다. 구제 원리의 측면에서 『태평경』은 ‘해원결’이나 ‘해승부’(解承負)를 통해 ‘삼기상통’(三氣相通)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는 『전경』의 해원상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경, 사회적 이상과 구제 원리의 측면에서 『전경』과 『태평경』은 유사한 일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계의 주목을 받아 이와 관련한 학술적 성과를 여러 간행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정재서는 가장 먼저 증산의 해원사상과 『태평경』의 해원결 관계를 제시하였다.<sup>2)</sup> 또한 차선근은 『태평경』의 해원결과 『전경』 중의 해원상생을 비교하여 상통점과 상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sup>3)</sup> 그러나 『태평경』과 대순진리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계의 관련 연구가 대체로 『태평경』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에 대한 비교 연구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원결에 비해 승부는 보다 핵심적인 사상으로서 『태평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빈도수도 훨씬 높다.<sup>4)</sup> 해승부와 해원상생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해승부와 해원상생, 이상사회의 실현이 갖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과 더불어,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론적 시각에서 『전경』과 『태평경』의 비교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에 학계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바란다.

2) [韓]鄭在書, 「韓國道敎의固有性」, 『韓國傳統思想의特性研究』(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pp.204-205 참조.

3) [韓]車瑄根, 「太平經의解冤結與大巡眞理會의解冤相生之比較研究」, 『道與東方文化-東亞道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2) 참조.

4) 『태평경』에는 “원결(冤結)”, “해원결(解冤結)”, “승부(承負)”, “해승부(解承負)”라는 말이 각 32, 2, 156, 13차례 출현한다.

## I. 사회적 이상 - ‘태평세도(太平世道)’와 ‘후천선경’

동한 후기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는데, 수재와 가뭄, 지진과 병충해로 인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환제(桓帝) 영흥(永興) 원년(153년) 7월에 메뚜기 떼로 인해 제후국이 32번의 재앙을 입었다. 이에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길가에 넘쳐 났으며 피해를 입은 집들이 수십 만 호에 달했는데 특히 기주(冀州)의 상황이 심각하였다.”<sup>5)</sup> 심지어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참상이 발생하여 “하내(河內)의 여인들이 남편을 잡아 먹고, 하남(河南)의 남편들이 아내를 잡아먹는다.”<sup>6)</sup>라 하였다.

『태평경』은 태평을 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태평세도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태평이란 무엇인가? 『태평경』 48권의 「삼합상통결」(三合相通訣)에서는 말하기를, “태(太)는 크다는 말한다. 이는 더 없이 넓고 행함이 하늘과 같다는 것이니 무릇 크기를 말하자면 하늘보다 큰 것은 없다. 평(平)은 평등하고 균형 있게 다스린다는 것이니 이러한 도리를 알고 일을 행한다면 간사하고 삿됨이 없을 것이다. 평이란 아래에 거하며 공평함을 주재하는 것이다.”<sup>7)</sup> 이로 볼 때 평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공평함이다. “평은 평등하고 균형 있게 다스린다는 것이니 이러한 도리를 알고 일을 행한다면 간사하고 삿됨이 없을 것이다.”<sup>8)</sup>라 하였는데 이때 “간사하고 삿됨이 없다.”는 것은 곧 공평을 뜻한다.

둘째,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을 말한다, 『포천과지수기부절결』(包天裹地守氣不絕訣)에서는 “원망이 없는 것을 일컬어 평이라 한다.”<sup>9)</sup>라 하였다. 셋째, 균등함을 말한다. 『도우삼인결』(道佑三人訣)에서는 “천

5) 『後漢書』卷7, 桓帝記, 第2册, p.298.

6) 같은 책, p.317.

7) 『太平經』, p.148.

8) 같은 책, p.148.

9) 같은 책, p.451.

지가 베푸는 것을 균등히 하고, 귀함과 비천함,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아지면 이를 평이라 한다.”<sup>10)</sup>라 하였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귀함과 비천함,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아지면 이를 평이라 한다.”는 말은 곧 균등과 평등을 의미한다. 넷째, 재해가 없음을 뜻한다. 『태평경』에서는 “기란 천기가 기뻐하면 낱고, 지기가 이에 순응하면 기른다. 이것을 말한다. 하늘은 낮게 하고 땅을 높여 음양이 서로 합쳐져서 화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의 운행 법칙이니, 상중하의 기가 삼합을 이루면 만물을 성장하게 할 수 있고, 삼기가 서로 화애롭게 통하게 되면 해하는 것이 없어진다.”<sup>11)</sup>라 하였다. 그러므로 『태평경』이 추구하는 것은 곧 평등하고 무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재해가 없는 태평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증산께서는 한국 역사상 권신들이 조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이들의 외척들이 ‘세도정치’를 행하였던 시기에 생활하셨다. 이 때는 정치가 강이 문란하였고 매관매직이 성행하였으며, 당시 조정은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사하여 삼정이 극도로 문란하였다. 삼정의 문란은 농촌의 황폐화로 이어졌고, 이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흉년으로 질병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였고 나라 안팎으로 유민들이 넘쳐 났으므로 이 시기의 기록과 문집에서는 수해, 한재, 병충해, 질병, 유랑민, 기아, 수재, 도적, 민란에 대한 기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sup>12)</sup>

이렇듯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이들은 농민이었다.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났으며 각처를 유랑하였으므로 폐해에 맞서 잦은 민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동학농민운동 또한 이러한 민란의 하나였다. 『전경』에서는 증산께서 당시의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신 정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전 봉준(全

10) 같은 책, p.683.

11) 같은 책, p.148.

12) [韓]李元淳等著, 『韓國史』, 詹卓穎譯(幼獅文化事業公司, 1987), pp.250-251 참조.

琿準)이 학정(虐政)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도다. 이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과연 이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sup>13)</sup>

이로 볼 때 증산께서 생활하셨던 “당시는 가릴 사이 없이 마구 죽이는 판국”<sup>14)</sup>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께서는 광구천하의 뜻을 세우셨는데, 『전경』에서는 “유생들은 세상이 평온하다고 하나 세도는 날로 어지러워졌도다. 상제께서 이때 비로소 광구천하하실 뜻을 두셨도다.”<sup>15)</sup>라는 말로 관련 상황을 전하고 있다. 증산께서 세우신 광구천하의 뜻은 사실상 ‘후천선경’이나 ‘지상천국’을 건립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상(無上)한 지혜(智慧)와 무변(無邊)의 덕화(德化)와 위대(偉大)한 권능(權能)의 소유주(所有主)이시며 역사적(歷史的) 대종교가(大宗教家)이신 강증산(姜甌山) 성사(聖師)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主宰)하시고 천하(天下)를 대순(大巡)하시다가 인세(人世)에 대강(大降)하사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整理)하시고 후천(後天)의 무궁(無窮)한 선경(仙境)의 운로(運路)를 열어 지상천국(地上天國)을 건설(建設)하고 비겁(否劫)에 쌓인 신명(神明)과 재겁(災劫)에 빠진 세계창생(世界蒼生)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주유(巡回周遊)하시며 대공사(大公事)를 행(行)하시니”<sup>16)</sup>라는 『대순진리회요람』의 내용은 이를 설명한다. 이후 대순진리회에서는 ‘후천선경’을 종단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무릇 뜻있고 연운(緣運)있는 모든 중생(衆生)은 해원상생(解冤相生)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지향(指向)하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 동귀(同歸)함을 목적(目的)으로 이에 취지

13)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전경』,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행록 1장 23절, pp.7-8. 1장 23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년도에 관해 생략하였다. 또한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전경』에 근거한다.

14) 같은 책, 행록 1장 26절, p.9.

15) 같은 책, 행록 1장 25절, p.8.

16) 『대순진리회요람』, p.4.

(趣旨)를 선포(宣布)하는 바이다.”<sup>17)</sup>는 말은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준다.

『전경』에서 언급한 이상사회 건설, 즉 ‘후천선경’이나 ‘지상천국’이란 말이 가리키는 뜻은 무엇일까? 『전경』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한국 학자인 차선근의 연구에 의하면, “상극과 원이 없는 상생의 후천선경은 음양정립(일음일양, 정음정양), 음양합덕을 이룬 세계”<sup>18)</sup>이다. 차선근은 『전경』에서 논한 ‘후천선경’을 열 가지 이상으로 귀납하였다.<sup>19)</sup> 이는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후천선경’은 첫째, 전쟁과 재해가 없다. 둘째, 남녀와 귀천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셋째, 도덕이 높아지고 문명이 발달한다. 넷째, 정교가 합일된다. 다섯째, 백성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여섯째, 불로장생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태평경』이 추구하는 ‘태평세도’와 『전경』에서 언급된 ‘후천선경’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중외고금(中外古今)에서 사회이상 실현을 논하는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의식(衣食)에 대한 걱정이 없고, 전쟁과

17) 같은 책, p.5.

18) [韓]車瑄根, 「現代韓國의 神仙世界論-以大巡眞理會의 神仙世界爲中心」, 『東亞道文化國際學術研討會-東亞道文化中的 神仙思想論文集』(2012), p.314.

19)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기가 통일되어 엇갈린 사상이 없어 분쟁이 없고, 만국이 화평하여 전쟁이 없음. 2. 모든 선천 문명의 정수가 합쳐져 새로운 문명이 이룩되고, 문명이기가 극도로 발달함. 3. 자연이 고르게 되어 수화풍의 삼재가 없음. 4. 사람을 해치는 곤충과 동물이 없음. 5. 신인조화 인존이 실현되고, 선천에 신들이 했던 일을 인간인 지상신선이 대신 맡게 됨. 6. 성용을 겸비한 도통군자가 정치와 교화를 같이 하니,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상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림.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됨. 7. 인의 도덕이 바로 서고 선으로써 먹고 사는 성인들의 시대임. 8. 만인이 평등해짐. 비록 계급은 두 개이지만, 빈부의 차별이 없고 식욕이 고풍. 9. 남녀가 평등해져 남존여비가 없으며, 남녀 사이의 예법이 바로 섬. 10. 사람은 불로불사하며, 지혜가 함어져 과거 현재 미래 지방세계에 통달하고, 왕래를 뜻대로 함. 심지어 하늘도 마음대로 오르내림. 11. 원울과 탐음 등 모든 번뇌와 시기 질투가 없음. 12.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됨. 13. 각 학교에서는 태을주를 외움. 14.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돋음.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며,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농사를 지음. 15. 껌만 열면 옷과 밥이 나오고, 불을 때지 않고도 밥을 지음. 16. 금으로 된 신발을 신으며, 문고리나 옷걸이는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있어서 온 동리가 대낮과 같이 밝음. 17. 소중화가 곧 대중화가 됨. [韓]車瑄根, 앞의 글, p.314 참조.

재해가 사라지며, 백성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태평세도’와 ‘후천선경’이 유사성을 가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본주의 사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전경』 중의 모두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말은 곧 불평등의 지위가 문제를 야기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혹은 ‘사람’이 존중 받지 못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말해 준다. 이에 관해 『전경』에서는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sup>20)</sup> 하였다.

이로 비추어 볼 때, 강일순 성사께서는 ‘인존시대’를 제창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sup>21)</sup>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인존시대의 의미는 곧 ‘사람’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에 있으므로 강한 인본주의 사상을 나타낸다. 강일순 성사께서 생활하셨던 시기는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보잘 것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인명이 초개와 다름없었던 때였다. 특히 강증산 성사께서는 소시적부터 군병들이 동학봉기군을 사살함을 친히 목도하셨으므로 동학병들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시고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함을 막기 위해 동학에 가입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권고 하셨다. 이에 관해 『전경』에서는 “과연 이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sup>22)</sup>라는 말로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경』에서는 당시 조정의 군병들이 동학봉기군들을 핍박하였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다. 이를 볼 때, 분별력이 상실되어 무고한 생민이 희생되는 어려운 시기에 강일순 성사께서는 ‘사람’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강조

20) 『전경』, 교법 3장 31절, p.281.

21)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p.269.

22) 같은 책, 행록 1장 23절, pp.7-8.

함으로써 ‘사람’과 인명에 대한 존중사상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증산께서 생활하셨던 시대는 유교윤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지위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증산께서 생활하시던 사회는 사람들이 유교 윤리를 중심으로 상하의 지위 관계를 엄격히 지켰으므로 이로 인해 사회 각 계층 간의 신분 차이와 불평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증산께서는 상층 양반사회가 노예와 천민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셨고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말하셨다.”<sup>23)</sup>라 하였다. 준비와 귀천은 원결의 일종으로 모두가 평등해져야만 사람과 사람 간의 원결이 해소되게 된다. 또한 이로써 후천선경과 화평성세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전경』에서는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sup>24)</sup>라 하였다.

『태평경』에서는 『전경』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평등해야 할 것을 제창하였고, 특히 ‘사람’의 쓰임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곧 천, 지, 인은 원기(元氣)의 산물인데 사람은 천지인의 중심으로서 천지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생명을 양육해야만 천지인 삼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원기는 천지의 본성을 위해 존재한다. 천지가 기뻐하면 이는 곧 선에 응하는 것이고, 천지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는 곧 악에 응하는 것이 된다. 만물의 형상과 종류는 그 형체를 이루고 천지에 응하는 울림은 소리가 된다. 태음, 태양, 중화의 삼기는 이치에 의해 존재하며 상호 감응을 이루는데 이때 사람은 이것의 중추가 됨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귀함을 알아 양육하고 위로는 존중하고 아래로는 자애로워야 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해야 한다. 이렇게 삼기가 기뻐하게 되면 큰 화합이 이루지고 함께 드러나게 된다.”<sup>25)</sup> 사람의 작용이 중요하므로 『태평경』에서 실현하고

23) 李浩哲, 「韓國龜山敎思想解析」, 『宗敎學研究』第1期(2006).

24) 『전경』, 교법 1장 9절, p.244.



자 하는 사회적 이상은 곧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사람의 대표자인 군주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태평경』에서는 “사람이 병이 없으면, 하늘도 병이 없다.”<sup>26)</sup>라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재난은 모두가 사람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서 야기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평성세를 이루기 위한 관건은 승부를 푸는데 있으며 특히 제왕의 승부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남녀평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도교에서는 부드러움이 귀하고 여성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경』에서는 “천하에 있는 부드러움의 극치는 천하에 있는 강건함의 극치를 주재한다고 하였으며, 천하의 만물은 음양의 상반된 기운을 가졌다고 하였고, 또한 남성성이 여성성을 지키며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성을 가져야만 사람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등을 말하였는데 이렇게 음을 주목한 사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태평경』은 부드러움을 귀히 여기는 사상을 계승하고 발양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남자는 양이고 태어남을 주재하며, 여자는 음이고 만물을 키운다. 웅(雄)은 양이고, 낳음을 관장하고 자(雌)는 음이고 키우는 일을 관장한다. … 천하의 모든 것은 일음일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서로 상생을 이루고 서로 키울 수 있게 된다. 일양이 베풀지 않고 일음이 비어 있으면 만물을 키울 수 없으며, 일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양은 베풀고 통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양기가 통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늘의 원망을 낳고, 일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sup>27)</sup>라 하였다. 남자는 곧 양을 대표하며 낳음을 주재하고 여자는 음양을 대표하며 키움을 주재하므로 일음일양이 함께 존재해야만 만물이 상생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음양이 균형을 잃게 되면 큰 원을 양산하게 되고 재앙이 닥치게 되니 이로써 『태평경』에서는 음양상합과 음양상생을 통해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

25) 『太平經』, pp.17-18.

26) 같은 책, p.355.

27) 같은 책, pp.220-221.

였음을 알 수 있다.

『전경』에서도 『태평경』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평등을 제창하였으며 남녀평등을 창도하였다. 『전경』에 수록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는 사람을 쓸 때는 남녀 노약을 구별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진평(陳平)은 아출 동문 여자 이천인(夜出東門女子二千人) 하였느니라.”<sup>28)</sup>,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sup>29)</sup> 상제께서 남녀평등을 강조한 이유는 “건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고 음양의 균형을 위해서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는 “공신을 돌아보시며 「경석은 열둘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요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sup>30)</sup>라는 구절이 있다. 건은 양을 대표하며, 곤은 음을 대표한다. 일건일곤은 일음일양이며 음양의 평형을 의미한다. 이로 볼 때, 『전경』에서는 음양의 균형을 바로 잡는 원리로서 남녀평등을 말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태평경』의 관련 내용과 일치한다.

동한(東漢)은 남권중심의 사회였으며 부녀자를 경시하였고 여아를 죽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이 도리를 상실하여, 여자를 천시하고, 역적들이 부녀자들을 죽이므로 여자의 수가 남자에 비해 적어지게 됨으로써 음기가 단절되게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법칙에 위배된다. … 재해가 많아져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태평을 이룰 수 없게 하였다.”<sup>31)</sup> 『태평경』에서는 이렇게 여자를 참살하는 상황을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음기를 절멸하게 하고 음양이 조화를 잃게 함으로써 원결을 만들게 된다 하였다. “오늘날 하늘 아래 모든 가정에서 여자아이를 죽이니 천하에 몇 억의 가정이 모두 이런 일을 행

28) 『전경』, 교법 2장 40절, p.266.

29) 같은 책, 교법 1장 68절, p.256.

30) 같은 책, 공사 2장 16절, p.120.

31) 『太平經』, p.34.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한 가정에서 십여 명의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가져 출생하기도 전에 상해하는 경우도 있어 그 원결이 하늘에 닿을 정도이니 이렇게 도리를 위배함을 어찌하겠는가?”<sup>32)</sup> 『태평경』에서의 이러한 내용과 같이 『전경』에서도 남녀의 불평등은 원결의 표현이며, 해원시대에는 반드시 원결이 해소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상제께서 공우에게 하신 말씀을 아래와 같이 수록하고 있다.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sup>33)</sup>

『전경』과 『태평경』에서는 음양평형의 논리로써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제창하고 있으며, 음양의 불균형이 원결을 양산하여 재앙이 발생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확연히 진보적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의 각 종교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적 경시 풍조를 드러내고 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성을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불결한 물건’으로 말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경시 풍조를 나타내는데, 불교 또한 이와 유사한 성별차등 관념이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유가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뚜렷한데, ‘삼종사덕(三從四德)’은 유가의 예교(禮敎)적 인습의 관점에서 여성의 인생 전반에 걸쳐 행위, 도덕의 규범을 요구하였으므로 과도하게 여성을 속박했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전경과 『태평경』에서는 음양의 불균형, 음양 화합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여성’이 음·곤과 일치함을 강조하였으며, 양·건인 ‘남성’과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아, 남녀평등을 제창하는 한편, 부녀를 멸시하고, 여자를 사살하는 행위를 반대하였으므로 오늘날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곧 불로장생 사상이다. 장생불사를

32) 같은 책, p.36.

33) 『전경』, 공사 1장 32절, p.108.

이루고 득도하여 신선이 된다는 것은 도교의 가장 큰 목표로, 『태평경』도 예외가 아니다. 『태평경』에서는 천지간에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 하였으며 사람들 모두가 ‘불사성선(不死成仙)’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릇 사람과 신은 모두 천기를 받는데, 원기가 곧 천기를 받는다. 신은 기를 통해 다니므로 사람이 기가 있음은 신이 있다는 것이요, 신이 있다는 것은 기가 있다는 것이니 신이 떠나면 기가 사라지게 되고 기가 없으면 신이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신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기가 없어도 죽게 된다.”<sup>34)</sup>라 하였다. 이로 볼 때, 기와 신이 동시에 사람 몸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사는 것에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이는 기와 신이 있어 신과 기가 결합해야만 불로장생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전경』에서 강조하는 후천선경 또한 불로장생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 이니라.”<sup>35)</sup>라 하였다. 이렇듯 양자는 모두 불로장생을 추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태평경』에는 도교 의학 사상이 풍부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도경과 도서에서 의학, 섭양(攝養), 수련하여 장생함을 논하는 기초가 되었다.

『태평경』에는 광대한 민간의료 성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또한 노비와 이적(夷狄)에 대한 구제사상이 녹아 있는 등 우수한 전통문화가 함유되어 있다. 이 외에도 『태평경』에서는 의덕수양의 중요성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의약을 병용(並用)함을 말하고 방(方), 구(灸), 침(針), 차(刺) 등의 의술을 강조하고 있다.<sup>36)</sup>

『전경』에서는 의료에 대한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천지공사 중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경』에서는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34) 『太平經』, p.96.

35) 『전경』, 권지 1장 11절, p.291.

36) 丁貽莊, 「試論太平經中的道教醫學思想」, 『宗教學研究』 第3期 (1987).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37)</sup>라는 내용이 있다. 『전경』을 통해 볼 때, 증산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기타 재해는 모두 물리쳤으나 질병의 치료는 의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경』의 제생 편에서는 증산의 의세 행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마, 부주, 초약 등에 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주으로써 병을 치료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김 윤근이 치질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계묘년 삼월에 이르러 기동할 수 없이 누울 정도로 심해지니라. 이를 긍휼히 여기사 상제께서 그로 하여금 아침마다 시천주를 일곱 번씩 외우게 하셨도다. 그가 그대로 행하더니 병에 차도가 있어 얼마 후에 완쾌되었도다.”<sup>38)</sup> 이 외에도 『전경』에는 상제께서 김창여(金昌汝)를 “평상 위에 눕히고 배를 만지면서 형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하였더니 창여(昌汝)는 체증으로부터 제생되었도다. 하늘 아래 팔자곡을 읊조려보니 인간세상의 눈물이 흘러 삼월의 비가 되었네. 해바라기의 정성스러움은 능히 곤룡포를 기울 수 있으나 부평초가 떠오를 때마다 껍옥이 우네. 임술년의 가을에 달이 환히 밝았는데 만리의 구름이 태을궁을 가리네. 두 나그네의 청아한 통소 소리에 교룡이 춤을 추고 왕겁의 시간을 향해 까마귀 날아가니 삼국에 풍진이 이누나(調來天下八字曲 淚流人間三月雨 葵花細枕能補袞 萍水浮踵頻泣玦 一年明月壬戌秋 萬里雲迷太乙宮 清音鮫舞二客簫 往劫鳥飛三國塵).”라는 내용이 있다.

『태평경』에도 부주(符祝)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수록하고 있는데 『태평경』 중의 신주문결(神祝文訣)은 신주(神祝)의 작용을 전하고 있다. 신주란 천상의 신선이 세인에게 전수하는 특수한 언어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경』에는 “천상의 신성이 하신 말씀이 있어 이를 말로써 전하고자 하니 이를 사용하면 신리(神吏)가 응하여 왕래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를 얻어 신주(神祝)라 이름

37) 『전경』, 공사 1장 36절, p.110.

38) 같은 책, 제생 7절, p.317.

하였다. 주문은 백이면 백, 열이면 열 모두가 천상의 신이 전한 말이 나, 이러한 주문은 신으로 하여금 병을 제거하게 한다. 이러한 주문은 매우 효력이 있어 이를 사용하여 낫지 않는 병이 없다.”<sup>39)</sup>라 하였다.

『태평경』과 『전경』은 저술된 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지만 사회이상의 구상적 측면에서 매우 큰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양자는 차이점도 지니고 있는데 『전경』에서는 현대적 의의를 바탕으로 전지구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후천선경이라는 사회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에 있어 이후 언어가 통일된다고 하는 내용은 『태평경』과 뚜렷한 차이점을 지닌다.

## II. 구세지도(救世之道) - ‘해승부(解承負)’와 ‘해원상생’

『전경』과 『태평경』은 모두 병폐가 심각하고 상처투성이인 사회를 향해 유사성을 지닌 사회적 이상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양자는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구체하고 변화시키며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고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 양자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가?

### 1. 불화불통(不和不通) - 해승부 - 삼기상통(三氣相通)

『태평경』에서는 세계의 만사만물이 모두 ‘원기(元氣)’에 의해 소생하고 천지인은 원기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경』에서는 원기와 자연의 태화지기(太和之氣)는 서로 상통하며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일한다. 형체가 없이 어렴풋한 가운데 삼기가 응집되면 천지

39) 『太平經』, p.181.

가 이루어졌다. 천지는 중화와 상통하니 힘과 마음을 합쳐 만물을 생성시킨다.”<sup>40)</sup> ‘원기’가 나누어져 “삼기(三氣)가 생겨났으니, 이는 만물의 구성하는 삼요소가 되었다. 즉 “원기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는 곧 태양(太陰), 태음(太陽), 중화(中和)이며, 그 형체를 일컬어 천, 지, 인이라 한다. 천(天)은 다시 일(日), 월(月), 성(星)으로 나누어지는데 북극이 중심이 된다. 지(地)는 다시 산(山), 천(川), 평토(平土)로 나누어지며, 인(人)은 부, 모, 자로 나누어진다. 치(治)는 군, 신, 민으로 나누어져서 태평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 지, 인은 중심이 되어 나누어짐이 없이 함께 근심하여 일가를 세우고 태평을 이루어 영원히 태평이 지속되게 한다.”<sup>41)</sup>

사물은 모두 천지인의 삼요소로 이루어지고, 삼자가 서로 결합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만 만물이 존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삼기’가 서로 통하느냐의 여부는 곧 천하의 화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이 다스려 태평을 이룰 때에는 모두 천지의 중화지심(中和之心)을 구하며, 그 중 하나의 기라도 통하지 않게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된다.”<sup>42)</sup> “오늘날 삼기가 서로 통하지 못하니 태평이 안착할 수 있겠는가?”<sup>43)</sup>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삼기’가 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태평경』에서 볼 때, 이는 만물만사가 모두 음양으로 이루어짐과 관계가 있다. 이와 연관하여 화합음양법(和合陰陽法)에는 아래와 같은 말이 있다. “하늘이 생긴 후 땅이 생겼으며, 해가 생긴 후 달이 생겼고, 봄이 있는 후 가을이 있게 되었고, 여름이 있는 후 겨울이 있게 되었다. 왼쪽이 생긴 후 오른쪽이 있게 되었고, 바깥이 있는 후 안이 생기게 되었으며, 흰색이 생긴 후 검은색이 생겼고, 밝음이 있는 후 어두움이 있게 되었다. 강함이 있는 후 부드러움이 생겼으며, 수컷이 있으므로 암컷이 생

40) 같은 책, p.148.

41) 같은 책, p.19.

42) 같은 책, p.18.

43) 같은 책, p.20.

겨났고, 산이 있는 후 언덕이 생겨났다.”<sup>44)</sup> 만약 음양이 불화하고 혹은 조화를 잃어버린다면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곧 “천지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홀로 다하면 만물이 병해를 입게 된다. 제왕이 음양을 다스림이 조화롭지 못하면 수한(水旱)이 반복되고, 도적이 출몰하며 형벌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고 형벌을 증가시키거나 더 가중시켜야만 한다.”<sup>45)</sup>라 하였다.

음양이 화합하면 새로운 사물이 생겨나므로 “음양이 서로 상대하고 합해지는 것이 곧 생명이다.”<sup>46)</sup> 이는 “두 개의 반쪽이 합해져 일을 이룬다.”는 『태평경』의 사상과 동일하다. “무릇 대신(大神)이란 천과 지를 말함에 지나지 않고, 대명(大明)이란 일과 월을 말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두 개의 반쪽이 합쳐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즉 천지가 각자 반쪽의 힘을 내어 한 마음으로 화합할 때, 만물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주야가 각자 반쪽의 힘을 내어 하루를 이루게 되며, 춘하추동이 각자 힘을 분담하여 일 년을 만든다. 한 달은 서쪽에서 시작되어 동쪽에서 성장하게 되며, 15일이 되었을 때 양이라 이름하고, 다시 15일이 지나 사라지게 될 때 음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각자 반쪽의 힘을 내어 한 달을 만드는 것이다. 남녀 또한 각자 반쪽의 힘을 내어, 뜻을 함께 하며 화합하여 일가를 이룬다. 천지의 도는 일음일양과 동일하며 각자 반쪽의 힘을 내어 하나로 합쳐져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과 신하가 마음과 힘을 합쳐 각자 반쪽의 힘을 내어 모든 생각이 동일해지면 태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sup>47)</sup> 『태평경』에서 볼 때, 만물은 음양이 있으며, 음과 양이 각자 반쪽의 힘을 내고 이로써 새로운 사물을 탄생시킨다. 그러므로 음양이 조화를 잃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물을 탄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부와 모는 양과 음을 대표하는데 부모가 결합하지 못하면 자녀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

44) 같은 책, p.728.

45) 같은 책, p.23.

46) 같은 책, p.678.

47) 같은 책, pp.715-716.



람'의 삼요소인 부, 모, 자의 '삼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음양이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태평경』에서는 사회의 재난이 형성되는 원인이 '삼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크게 화합한다는 것은 태평지기(太平之氣)가 생성됨을 말하는 것이다. 삼기가 끊어지고, 삼기 중의 일기가 화합에 이르지 못하면 크게 화합함에 도달할 수 없으며 태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음양의 핵심은 중화(中和)이다. 중화의 기를 얻으며 만물이 자생하고, 백성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왕은 다스림을 통해 태평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 오늘날은 삼기가 통하지 않으니 어찌 태평이 안착할 수 있겠는가?”<sup>48)</sup> 그러므로 '태평세도'를 이루는 관건은 '삼기상통'(三氣相通)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경』 48권 「삼합상통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원기와 자연의 태화지기는 서로 통하니 합하여 한 마음이 되면 형체가 없이 어렴풋한 가운데, 삼기가 모여 천지를 낳는다. 천지와 중화는 서로 통하니 서로 힘과 마음을 합하여 만물을 소생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삼광이 서로 상통하여 힘과 마음을 합하면 천지를 밝힐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물의 오행강유(五行綱柔)와 중화가 서로 상통하여 힘과 마음을 합하면 곧 만물을 이루게 된다. 사시(四時)의 기를 간직한 음양과 천지의 중화가 상통하여 힘과 마음을 합하면 천지의 생명이 흥하게 되고 만물에 이로움을 주게 된다. 맹(孟), 중(仲), 계(季)가 서로 통하여 힘과 마음을 합하면 일의 한 측면을 만들어 낸다. 땅의 높음과 낮음 그리고 평평함이 힘과 마음을 합하면 천지만물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유동하는 존재에 속하는 자웅이 합해지는 것은 곧 공생과 상통을 말함이니 자웅(雌雄)이 힘과 마음을 합하면 그 종류를 발전시키게 된다. 또한 남녀가 서로 통하여 힘을 합하면 자녀가 생겨나고, 이 삼인이 상통하여 힘과 마음을 합하면 일가

48) 같은 책, pp.19-20.

를 이루게 된다.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이 힘과 마음을 합하면 한 나라를 이룬다. 이는 모두 원기, 자연과 천지가 생명을 받는 것에서 비롯된다. 범사에 이 삼자를 잘 통할 수 있게 되면 도를 이름과 같다.”<sup>49)</sup>

그렇다면 불화불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사람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야기되는 원결(冤結)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바 있다. “대순사상의 본질은 해원사상에 있다. 이러한 이론은 무속의 한풀이에서 기원하여 일찍이 무속의 바탕으로 발생한 민간도교에 출현하였다. 『태평경』의 도처에서는 원한 맺힘 즉 ‘원결’을 세상의 모든 부조화와 불합리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원결을 풀어주는 것이 해원결이다.”<sup>50)</sup> 사실상, 『태평경』에서는 해원결의 상대적인 개념인 해승부(解承負)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원결과 해승부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먼저 ‘원결’과 ‘승부’의 관계를 살펴보자.

승부의 ‘승’(承)은 선인(先人)에 해당되고 ‘부’(負)는 이와 상대적인 후인(後人)에 해당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날의 재앙과 복은 선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오늘날 사람들의 언행은 후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혹은 복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오늘날에 ‘암몽 천생구설’(暗蒙淺生具說)과 ‘승부설’(承負說)을 비교하여 말하는데 승과 부를 알지 못하고 어찌 사를 알겠는가? 그러나 승은 앞에 있고 부는 뒤에 있으니 승은 선인들이 승천심(承天心)에 의해 일을 행할 때 작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잘못이 점점 쌓여 오늘날의 후세들이 무고히 이러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은 잘못들이 재해로 돌아오므로 선인들이 행한 바를 승이라 하고 후세들이 이를 받는 것을 부라고 한다. 부에 대해 말하자면 한 사람이 퍼져가는 재해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만이 뒤를 잇게 되고 이로써 선인과 후세가 서로 짐을 감당해야 함으로써 부

49) 같은 책, pp.148-149.

50) [韓]鄭在書, 앞의 글, pp.204-205.

라 이른다. 선인의 짐을 후세가 감당해야 하므로 승부의 병이 더욱이 깊어지게 되어 재해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51)</sup>

그렇다면 원결을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태평경』의 「오사해승부법 제사십팔」(五事解承負法第四十八)에서는 승부에 대해 많은 구체적 예를 들고 있다. “오늘날 한 스승이 열 명의 제자를 가르킨다고 할 때, 그 스승이 실제에 맞지 않는 말로써 제자들을 현혹하면 열 명의 제자들이 다시 각각의 제자 열 명에게 이를 전하게 되므로 백 명이 거짓을 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그 백 명이 열 명에게 그릇된 말을 전하게 되면 천 명이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이고, 천 명이 다시 열 명씩을 가르치면 만 명이 거짓을 말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며, 만 명이 도처에 이를 전하면 천하가 거짓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대중이 거짓을 받아들여 서로 전하고 이를 증명하다 보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 상식이 되어 버리고 만다. 원래 한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한 것에서 일이 시작되었으나, 사람들이 이를 맞는 것이라고 정의해 버림으로써 바른 말이 힘을 잃어 풍속을 어지럽히게 되어 천하가 이로 인해 큰 병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금할 수 없으니 후세인들이 이를 잊게 되는 것이 곧 승부의 액인데 후세인들이 이에 관한 진실을 밝힐 수도 없는 것이다. 후세인들은 이 일의 유래와 너무 동떨어진 시간에 살고 있으므로, 도리어 현세의 사람들끼리 서로를 닮하게 되므로 서로 간의 원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긴 원은 제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었으므로 두 가지 일을 풀기 위해 진인(眞人)된 자는 더욱 명확히 관련된 일에 대해 들어야만 할 것이다.”<sup>52)</sup> 한 스승이 거짓을 가르쳤을 때, 그의 제자가 전수받은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 될 것이며, 이것이 다시 열 사람, 백 사람에게 확대되어 전해졌을 때, 후세인들은 그 유래를 알지 못하므로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원한이 갈수록 깊어져 원결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승부는 원인이

51) 『太平經』, p.70.

52) 같은 책, p.58.

되고 원결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재난은 승부 혹은 원결이 초래한다. 그러므로 해승부는 태평성세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스승이 황천(皇天)의 해승부 원한을 양산했으므로, 후세인들이 승부의 액을 해결해야 하며 제왕이 승부의 액을 풀어야 하고 백성들이 승부의 과실을 감당해야 하며, 만 이천에 달하는 물(物)이 승부를 푸는 책임을 져야 한다.”<sup>53)</sup> 보다 중요한 것은 『태평경』에서 볼 때,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초래하는 잘못된 결과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군주의 잘못이 가장 큰데, “승부를 야기한 사람의 죄과를 분류해 보면, 제왕이 야기한 승부는 삼만 년까지 전해지게 되며, 신하는 삼천 년, 백성들은 삼백 년간 승부의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sup>54)</sup> 심지어 『태평경』을 지은 방사성(方士聲)은 덕이 있는 군주와 승부를 해결할 수 있는 군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태평경』을 지었다고 말한다. 곧 『태평경』은 “천사인 내가 지은 것이며, 제왕의 승부에 대한 과보를 풀기 위한 것이다. 진인이 깨달은 도가 하늘과 상응하지 않으니, 오늘날 내가 글을 써서 하늘의 도에 상응하고자 한다. 나는 원결을 풀지 않고 천도에 상응할 수 없음을 글로써 말하고자 한다.”<sup>55)</sup> 또 그는 뒤이어 “나는 천지와 대화하고, 덕이 있는 군주를 위해 이 글을 지었으니, 천지의 개벽 이래 승부의 액에 대해 망언할 수 없다. 승부로 인해 황천후토(皇天后土)가 원망을 받게 되었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도덕이 뛰어난 군주가 이를 감당해야 하므로, 그 군주는 책임이 막중하니 진인(真人)은 이를 알고 있지 않겠는가?”<sup>56)</sup>라 하였다.

『태평경』은 ‘원기론’에서 출발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계의 만물이 ‘원기’의 산물이라 보고 있다. 만물에는 음양이 있으며 음양이 화합하면 새로운 사물이 생긴다. 음양의 균형을 잃어서 생기는 ‘불통’

53) 같은 책, p.57.

54) 같은 책, p.22.

55) 같은 책, p.165.

56) 같은 책, pp.83-84.

혹은 ‘불화’는 사회의 동란과 사람과 자연의 재화의 원인이 된다. 해 승부 혹은 해원결로써 음양을 조절할 수 있고 이는 ‘삼합상통’(三合相通)으로 이어지므로 태평성세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 2. ‘상극’ - 해원 - ‘상생’

『전경』에서는 도수가 바로 잡히지 못하여 인간의 재난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는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 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sup>57)</sup>라는 내용이 있다. 즉 ‘상극도수’가 바로 잡혀야만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증산께서 세간에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할 때의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천지의 도수를 바로 잡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경』에는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sup>58)</sup>라는 말이 있다. 천지의 도수를 바로 잡거나 혹은 변화시킨다는 것은 선천의 도수가 ‘상극’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전경』에서는 이를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sup>59)</sup>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상극’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표현되는데 먼저 ‘명부’(冥府)의 상극적

57) 『전경』, 예시 10절, p.339.

58) 같은 책, 예시 9절, p.339.

59) 같은 책, 예시 8절, p.338.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는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sup>60)</sup>라는 말이 있다. 다음으로는 세간에 쌓인 ‘원한’ 문제이다. 세간에 쌓인 ‘원한’은 인류 기록의 시작에서부터 발생하였으며, 인류의 재난 또한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인류가 기록을 행할 당시부터 원이 쌓이게 되었고 이는 천하로 퍼져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sup>61)</sup> 이로 볼 때, 인류의 원결은 요순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대대로 전해져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고이래로 다스림이 기강을 잃어 승부가 생기게 되었고, 후세인들은 이로부터 양산된 재난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써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 깊이 사고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힘과 마음을 합치지 않게 되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근심하고 괴로워하게 되었다.”<sup>62)</sup>

만약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상극’이라면 ‘해원’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전경』에서는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sup>63)</sup>라 하였다. 해

60) 같은 책, 예시 10절, p.339.

61) 같은 책, 공사 3장 4절, p.131.

62) 『太平經』, p.151.

원의 목적은 사물이 상극 상태에서 ‘상생’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께서 건설하고자 했던 ‘후천선경’은 일종의 ‘상생’ 상태를 말한다. 현실의 고난으로부터 이상사회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전경』에서는 도의 상실-상극-원이 쌓임-해원-상생의 내재적 논리로 설명하였다.

『태평경』과 『전경』에서는 사회의 재난이 모두 ‘불통’이나 ‘상극’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재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해원상생’, ‘해승부’ 혹은 ‘해원결’에 있으며 이로써 ‘태평세도’와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록 양자는 유사점이 많지만 서로 다른 점도 존재한다. 첫째, 전경에서는 ‘상극’이 선천의 상태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제께서 형렬에게 언급하셨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sup>64)</sup> 『태평경』에서는 사람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원한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원한이 생긴 이유로서 전자는 자연적 요소를 강조하고 후자는 사람의 요소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증산께서 세인들을 구하는 임무는 곧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아” 상극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이로써 ‘상생’의 후천선경을 건립하는 것이다. 『태평경』에서는 문제의 출발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의 잘못으로 초래된 ‘승부’를 천하를 어지럽게 만든 요인으로 보는데 이때 군주의 잘못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구제의 순서에 있어 양자는 서로 다른 순서를 갖고 있다. 『전경』에서는 세간의 재화는 선천의 ‘상극’에서 야기되었으므로 공사를 통해 선천의 상극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계의 상태와 세간의 재화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

63) 『전경』, 공사 3장 5절, p.131.

64) 같은 책, 공사 1장 3절, p.97.

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sup>65)</sup>고 하였으며,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 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sup>66)</sup>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를 행하는 바에 대해 『전경』에서는 “이 공사를 행함으로써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니 땅에 굽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도다.”<sup>67)</sup>라 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지상의 기근이나 재화가 아표신(餓孽神)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사를 통해 아표신을 천상으로 올려 보냄으로써 기화와 재해가 소멸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전경』에서는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체의 아표신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셨도다.”<sup>68)</sup>라는 말로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다. 『태평경』에서는 재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남녀평등 문제를 논함에 있어 당시의 사회가 남성을 중시하고 여성을 경시하며, 여성들을 참살하여 음양의 조화를 잃게 됨으로써 지기가 단절되어 천재와 재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태평경』에서는 “천도의 법에 오로지 양만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시들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된다. 여성은 땅에 응하므로 오직 천박한 대우를 받으니 천하가 진정한 어머니인 땅을 천박하게 여기고 지기를 죽임으로 인하여 지기가 멀하게 되었다. 이에 땅이 기쁨을 잃고 노하게 됨으로써 재해가 많아지니 군왕이 이를 다스려도 태평을 이루지 못한다.”<sup>69)</sup>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재해를 해소하는 관건이 되는데, 『태평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 특히 군주가 정도를 행해야만 태평세계가 이루어진다.

65) 같은 책, 공사 1장 3절, p.97.

66) 같은 책, 공사 1장 5절, p.98.

67) 같은 책, 예시 11절, p.339.

68) 같은 책, 권지 1장 8절, p.289.

69) 『太平經』, p.34.



### Ⅲ. 맺음말

『전경』과 『태평경』은 사회 이상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 사회적 배경, 구제 방식은 물론 최종목적에 있어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는 모두 정치적 부패와 경제가 붕괴할 정도의 상황에서 민생들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동란이 ‘상극’이나 ‘불상통’(不相通)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경에서는 ‘상극’은 일종의 선천의 상태이며, 구세주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태평경』에서는 사람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해 불행이 초래되므로 사람으로부터 문제에 가장 집중하는 사고를 보이고 있다. 구제의 방법에 있어 양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해원’이나 ‘해승부’(혹은 해원결)이다. 특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한을 말함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증산께서는 요와 단주의 고사라는 주제를 통해 인류 역사의 원한의 근원을 말하고 있으며, 단주의 원을 푸는 것을 통해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자 한다. 『태평경』에서는 선인(先人)이나 선왕(先王)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원결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해승부나 해원결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다른 사물이나 사로 다른 층위의 해원 혹은 해승부를 통해 만물의 ‘상생’이나 혹은 ‘삼기상통’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다.

구제의 순서에 있어 『전경』과 『태평경』을 차이점이 있다. 『전경』에서는 신의 해원을 통해 인간의 원결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며, 『태평경』에서는 사회의 재난이 인간, 즉 인간의 승부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봄으로 사람의 승부 특히 제왕의 승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 이상적 측면에서 ‘후천선경’이나 ‘태평세도’는 모두 전쟁의 재난을 멀리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므로 양자 모두 강한 인본주의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로써 양자는 사람과 사람간의 차별과 거리를 없애고 인간 본연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자 모두 음양균등의 이론을 통해 남녀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종족차별과 여성차별 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많은 의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典经』与『太平经』之社会理想比较研究

李海林\*

中国西南民族大学·讲师

- 一、社会理想——“太平世道”与“后天仙境”      三、结语  
二、拯救之道——“解承负”与“解冤相生”

古今中外，人们大都向往人人平等、衣食无忧、无战争灾害的理想社会，特别是在战争频发、天灾人祸的年代，尤为突出。东汉是中国历史上社会最为动荡时代之一，大概成书于汉代的『太平经』<sup>1)</sup>是道教最重要的经典之一，以实现“太平世道”为宗教理想，集中体现当时人们的迫切愿望。

韩国大巡真理会其名来源于姜一淳降临人世的种种传说，以『典经』为根本经典。甌山所处的年代也是朝廷腐败，整个社会处于极度动荡之中，甌山提倡“解冤相生”等拯救方法，以图实现“后天仙境”或“地上天国”，也符合当时广大民众的社会心理需求。后来的大巡真理会进一步把建立“后天仙境”作为教会目的。在拯救原理上，『太平经』认为通过“解冤结”或“解承负”，实现“三气相通”，这和『典经』“解冤相生”也有同工异曲之妙，因此，从社会背景、社会理想和拯救原理上，『典经』和『太平经』具有一定的相似性。

此点已引起了学界的关注，并有相关成果见诸于刊物。韩国的郑在书

\* 作者简介：李海林，男，汉，广东汕头人。哲学博士。西南民族大学政治学院讲师。

1) 按：『太平清领书』即『太平经』，没有署名作者和时间，此书来历传说甚多，本文采用的版本为王明编『太平经合校』（北京：中华书局，1960年），以下简称『太平经』。

最先提出甌山的解冤思想与『太平经』解冤结之关系<sup>2)</sup>。韩国车瑄根深入探讨了『太平经』解冤结与『典经』解冤相生之异同，颇有价值。<sup>3)</sup>遗憾的是对于『太平经』与大巡真理会理想社会之异同探讨、解冤结和解冤相生与各自社会理想实现的关系以及它们之间之异同研究还有待深入，与此同时，学界大多停留在『太平经』“解冤结”与大巡真理会“解冤相生”比较研究，事实上，相对与“冤结”，“承负”为『太平经』更核心的概念，其在『太平经』出现的频率远高于前者<sup>4)</sup>。解承负与解冤相生之异同、解承负和解冤相生与理想社会的实现之关系此等问题学界鲜有提及。兹从社会背景、社会理想、实现方法视角将『典经』和『太平经』作一比较，求以期有裨于学界并就教于方家。

## 一、社会理想 — “太平世道”与“后天仙境”

东汉后期，自然灾害连年不断，水、旱、地震、蝗虫等，民不聊生。桓帝永兴元年(153年)七月，郡国有三十二处大蝗灾：“百姓饥饿，流冗道路，至有数十万户，冀州尤甚。”<sup>5)</sup>甚至出现了“民相食”的悲惨景象：“河内人妇食夫，河南人夫食妇”。<sup>6)</sup>

『太平经』以“太平”命名，毋庸置疑，旨在实现其理想的“太平世道”。何为太平？卷四十八『三合相通诀』：“太者，大也。乃言其积大行如天，凡事大也，无复大于天者也。平者，乃言其治太平均，凡事悉理，无复奸私也；平者，比若地居下，主执平也。”<sup>7)</sup>“平”有以下几层意思：一、公平。“平者，乃

2) 参见[韩]郑在书：「韩国道教的固有性」，《韩国传统思想的特性研究》(城南：韩国精神文化研究院，1995年)，204-205页。

3) 参见[韩]车瑄根：「『太平经』的解冤结与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之比较研究」，《道与东方文化—东亚道文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北京：宗教文化出版社，2012年)。

4) 按：『太平经』出现“冤结”、“解冤结”、“承负”、“解承负”分别约32次、2次、156次、13次。

5) 『后汉书』卷7『桓帝纪』，第2册第298页。

6) 『后汉书』卷7『桓帝纪』，第2册第317页。

7) 『太平经』，第148页。

言其治太平，凡事悉理，无复奸私也。”<sup>8)</sup>“无复奸私也”就是公平。

二、无冤枉不平。卷九十八『包天裹地守气不绝诀』说：“平之为言者，乃平平无冤者，故为平也。”<sup>9)</sup>三、平均。卷一百十九『道佑三人诀』说：“天地施化得均，尊卑大小如一，乃无争讼者。”<sup>10)</sup>这里说的“尊卑大小如一”，就是表示平均、平等的意义。四、无灾害。“气者，乃言天气悦喜下生，地气顺喜上养；气之法行于天下地上，阴阳相得，交而为和，与中和气三合，共养凡物，三气相爱相通，无复有害者。”<sup>11)</sup>因此，『太平经』所追求的是一个治理平均、公正无私、相爱相通、无灾害的太平社会。

甌山所处的时代，刚刚经历了韩国史上的权臣当道把持朝政、外戚专权“势道政治”，政治纲纪一落千丈，任意买卖官职，政府对人民横征暴敛，三政的混乱达到了顶点。三政混乱使农村荒废，民心大为动摇，而且凶年疾病不断，饥民、流民充斥国内，此时期的各种年记与文集，对水害、旱害、虫害、疾病、流亡、饥饿、水灾、盗贼、民乱的记录占了相当大的比例。<sup>12)</sup>

在乱世中，受害最深的是农民，他们背井离乡、流窜四方，于是纷纷奋起反抗，导致各种民变，东学农民运动便是其中之一。甌山曾目睹这一切：“全琫准为虐政所愤，集东学徒举义兵起义之后，世间更加纷乱，东学徒们的怒气直冲霄汉，气势与日剧增。是时，上帝知晓东学军的前途不吉…是年冬，东学军果然被官军剿灭，听从上帝者皆免遭此大灾。”<sup>13)</sup>

可以说，甌山所处的年代，“正值一个不加分辨、滥杀无辜的乱世啊！”<sup>14)</sup>所以，他立下了匡救天下的志向：“众儒生虽称天下太平，但世道依旧日益艰难。就在这时，上帝立下了匡救天下的志向。”<sup>15)</sup>甌山所立的匡救天下

---

8) 『太平经』，第148页。

9) 『太平经』，第451页。

10) 『太平经』，第683页。

11) 『太平经』，第148页。

12) 参见[韩]李元淳等著 詹卓颖译：『韩国史』（幼狮文化事业公司，1987年），第250-251页。

13)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中文第1版），行录1-23，第7-8页。按：1-23表示第一章第23条目，年份以下简略。

14) 『典经』，行录1-26，第9页。

的志向，事实上就是建立“后天仙境”或“地上天国”。“无上智慧无边德化的伟大权能之所有主、历史性大宗教家姜一淳圣师作为九天大元造化主神主宰三界大权，为大巡天下而降临人间。上帝为匡正失常道之天地度数，开辟后天无穷仙境之运路，建设地上天国，广度所有缠身于否劫的神明与深陷灾劫的世界苍生，巡回周游行大公事。”<sup>16)</sup> 后来的大巡真理会进一步把建立“后天仙境”作为教会的目的：“为有志于求道，有缘于真理的所有众生皆同归解冤相生、地上天国为目的的大巡真理会，特宣布此趣旨。”<sup>17)</sup>

『典经』的理想社会——“后天仙境”或“地上天国”究竟是怎样的呢？『典经』没有系统的描述，根据韩国学者车瑄根的研究，“没有相克和结冤只有相生的后天仙境是一个阴阳正立(一阴一阳、正阴正阳)、阴阳合德的世界”<sup>18)</sup>，作者并根据『典经』所描绘的情况归纳出跟“后天仙境”相关十多个事项。<sup>19)</sup> 呈现出以下特点：第一，没有战争、没有灾害；第二、人人平等，男女平等。第三、道德高尚、文明发达；第四、政教合一；第五，人民生活幸福，第六、长生不老。

从总体上看，『太平经』所追求“太平世道”和『典经』的“后天仙境”具有很强的相似性。虽然中外古今，在社会理想构建方面，大多有类似之处，无

15) 『典经』，行录1-25，第8页。

16) 『大巡真理会要览』，第4页。

17) 『大巡真理会要览』，第5页。

18) [韩]车瑄根：『现代韩国的神仙世界论-以大巡真理会的的神仙世界为中心』，『东亚道文化国际学术研讨会-东亚道文化中的神仙思想论文集』(2012年)，第314页。

19) 如下：1、地气统一，人心安定，没有纠纷，没有战争，万国和平。2、融合所有先天文明的精髓形成新的文明，“文明利器”极度发达。3、风调雨顺，没有水火风三灾。4、没有危害人的昆虫和动物。5、实现神人调和和人尊，在先天由神做的事情可以交给成为地上神仙的人来做。6、由于是由智勇双全的“道通君子”共同管理政治和教化，所以不使用武力和刑罚也能让百姓遵守法理。“君师位”合为一体。7、仁义道德得到尊崇，万事善为首的圣人们的时代。8、万人平等。虽然存在两个阶级虽然存在着两个阶级，但是不存在贫富差距和贵贱之分。9、男女平等，不存在男尊女卑，男女之间的礼法完备。10、人可以长生不老，可以通达过去、现在、未来、十方世界，可以自由来往，甚至可以自由往返于天和地。11、冤郁和贪淫等所有的烦恼、杀气和妒嫉都消失。12、全世界都统一使用一种语言。13、所有学校都背诵太乙咒。14、播一次种后根上每年都会长出新芽，土地不施肥也会很肥沃，手不沾土也可以完成耕作。15、只要打开柜子就有衣服和食物，不生火也能做饭。16、穿着金子做成的鞋，门环和衣架都是用金子做成，每家都有一个灯台，夜晚整个村子明亮得像白天。17、小中华成为大中华。(参见 [韩]车瑄根：『现代韩国的神仙世界论-以大巡真理会的的神仙世界为中心』，『东亚道文化国际学术研讨会-东亚道文化中的神仙思想论文集』，2012年，第314页。)

非是衣食无忧、无战争灾害，人民自得其乐等等，但“太平世道”和“后天仙境”的一些相似性，尤为引人注目。

第一，人本主义思想。『典经』之所以追求人人平等，恰恰是人的不平等地位所造成的，或者说对“人”不够重视所引起的。“上帝曰：自古有上通天文、下达地理者，却无察人义者，如今现世矣。”<sup>20)</sup>

鉴此，姜一淳提倡“人尊时代”，“上帝曰：人尊大于天尊、地尊、今为人尊时代，当勤修心。”<sup>21)</sup>人尊时代意味着把“人”摆着首要的位置，具有强烈的人本主义思想。姜一淳所处的年代，可以说是一个众生皆蝼蚁、视人命如草芥时代，尤其他从小亲眼目睹，政府兵对东学起义军的屠杀，并预言起义军会失败，劝说人们切勿加入东学，以免造成更多的牺牲：“指明了东学军将在飘雪之际遭失败，并劝众人切勿加入东学。是年冬，东学军果然被官军剿灭，听从上帝者皆免遭此大灾。”<sup>22)</sup>此外，『典经』也有很多政府军迫害起义军的记载，正因当时此正值一个不加分辨、滥杀无辜的乱世，姜一淳才突出“人”的地位，强调对“人”的尊重，对生命的尊重。

甌山所在的时代是儒教伦理为中心而形成人人等级分明、身份差异的社会，“在甌山生活的社会，人们以儒教伦理为中心而严格维护上下等级关系，从而形成社会各阶层之间的身份差异和不平等。在这样的社会背景中，甌山强烈反对上层的两班社会以及奴隶和贱民受到歧视，要求尊重人权。”<sup>23)</sup>尊卑、贵贱也是一种冤结，只有人人平等，才能解除人际的冤结，从而实现后天仙境，和平盛世。“上帝曰：当今乃解冤时代。贵两班二分别尊卑，犹如掘祖坟而毁族。故速废两班之因习，善待贱人，冤方得解，迎和平盛世。”<sup>24)</sup>

『太平经』不但像『典经』那样，提倡人人平等，而且特别强调“人”的作用，认为天、地、人为元气的产物，人是枢要，人要知其命，养其躯，才能

20) 『典经』，教法3-31，第281页。

21) 『典经』，教法2-56，第269页。

22) 『典经』，行录1-23，第7-8页。

23) 李浩哲：『韩国甌山教思想解析』，『宗教学研究』第1期（2006年）。

24) 『典经』，教法1-9，第244页。

使三气悦喜,“元气自然, 共为天地之性也。六合八方悦喜, 则善应矣; 不悦喜, 则恶应矣。状类景象其形、响和其声也。太阴、太阳、中和三气共为理, 更相感动, 人为枢机, 故当深知之。皆知重其命, 养其躯, 即知尊其上, 爱其下, 乐生恶死, 三气以悦喜, 共为太和, 乃应并出也。”<sup>25)</sup> 正因为“人”的重要作用, 『太平经』所要实现的社会理想主要也是从“人”入手的, 特别是作为“人”代表的君主。『太平经』中说:“人无病, 即天无病也”<sup>26)</sup>, 社会的灾难, 都是由于人的不当行为所造成的, 也就是人的“承负”所以引起的, 因此实现太平世道的关键在于解承负, 尤其是帝王的承负。

第二, 男女平等。道教主张贵柔守雌, 在『道德经』中“天下之至柔, 驰骋天下之至坚”、“负阴而抱阳”、“知其雄, 守其雌”等主阴思想比比皆是。『太平经』继承和发扬的贵柔思想, 提出了男女平等, 认为:“男子, 阳也, 主生; 女子, 阴也, 主养万物。雄, 阳也, 主生; 雌, 阴也, 主养。…天下凡事, 皆一阴一阳, 乃能相生, 乃能相养。一阳不施生, 一阴并虚空, 无可养也; 一阴不受化, 一阳无可施生统也。阳气一统绝灭不通, 为天大怨也。一阴不受化, 不能生出, 为大咎。”<sup>27)</sup> 男, 代表阳, 主生; 女代表阴, 主养, 只有一阴一阳, 万物才能相生相养, 如果阴阳失衡, 就会出现大怨和大咎, 可见, 『太平经』通过阴阳和合、阴阳相生来阐述男女平等的重要性。

『典经』同样不但提倡人人平等, 而且倡导男女平等。“上帝曰:用人不分男女老幼, 故道‘陈平夜出东门女子两千人’。”<sup>28)</sup> 又:“上帝曰:在后天, 依个人所修, 女人亦可立功功德。自古男尊女卑之惯习将被破除。”<sup>29)</sup> 至于强调男女平等原因在于“端正乾坤”, 平衡阴阳:“又转身对公信道:‘京石愿娶十二妻, 然为何仅娶一人之妻?’公信答道:‘惟有一乾一坤, 不可有一乾二坤, 故一阴一阳为原理。’上帝听罢道:‘所言极是。’”<sup>30)</sup> 乾, 代表阳; 坤, 代

25) 『太平经』, 第17-18页。

26) 『太平经』, 第355页。

27) 『太平经』, 第220-221页。

28) 『典经』, 教法2-40, 第266页。

29) 『典经』, 教法1-68, 第256页。

30) 『典经』, 公事2-16, 第120页。



表阴。一乾一坤，也就是一阴一阳，阴阳平衡。可见，『典经』也是通过阴阳平衡的原理来阐述男女平等，这点跟『太平经』是一致的。

东汉是一个男权为中心的社会，歧视妇女，虐杀女婴情况时有发生。“今天下失道以来，多贱女子，而反贼杀之，令使女子少于男，故使阴气绝，不与天地法相应……灾害益多，使王治不得平”。<sup>31)</sup>『太平经』批判这种残杀女子的现象，认为会使阴气绝，造成阴阳失调，形成冤结，“今天下一家杀一女，天下几亿家哉？或有一家乃杀十数女者，或有妊之未生出，反就伤之者，其气冤结上动天，奈何无道理乎？”无独有偶，<sup>32)</sup>『典经』也认为男女之别，也是冤结的一种表现，是解冤时代必须解除的冤结。“上帝对朴公又说道：‘当今为解冤时代，解除了男女之别，令其各得所愿。今后将端正乾坤之位，重整礼法。’当时，公又正陪上帝途径泰仁邑，两老姬欲横穿上帝去路，上帝礼让道路，让其通过。”<sup>33)</sup>

『典经』和『太平经』基于阴阳平衡理论提倡男女平等的重要性，阴阳失衡会导致冤结的产生，从而导致灾祸，此点无疑具有进步性。纵观世界各大宗教，大多对女性都带有不同层次的性别歧视。在旧约律法下，就把女人的行经视为影响宗教生活的“不洁之物”，在佛教也有类似的性别歧视。中国的儒家，男尊女卑的思想更为突出，“三从四德”就是儒家礼教对妇女一生在行为、道德的规范要求，是严重束缚妇女的工具。『典经』和『太平经』从阴阳平衡、阴阳和合的角度出发，强调“女”作为阴、坤的一极，应和“男”作为阳、乾平等，提倡男女平等，反对歧视妇女、扼杀女子，在今天仍然具有启迪意义。

第三、长生不老。长生不死，得道成仙，是道教的最高目的，『太平经』也不例外。『太平经』认为，天地之间，“寿最为善”，人人都有达到“不死成仙”的可能性。“凡事人神者，皆受之于天气，天气者受之于元气。神者乘气而行，故人有气则有神，有神则有气，神去则气绝，气亡则神去。故

31) 『太平经』，第34页。

32) 『太平经』，第36页。

33) 『典经』，公事1-32，第108页。

无神亦死，无气亦死。”<sup>34)</sup>气、神是否同时存在人身上，是生不可缺的必要条件，只要做到有气有神、神气结合，就可长生不老。『典经』所提倡的后天仙境也具有长生不老的特点，“信我者可得永久福祿，长生不老，永享仙境之乐，是为真东学也。”<sup>35)</sup>正因为两者都是追求长生不老，所以都特别重视治疗疾病。『太平经』蕴含着丰富的道医思想，“(按：『太平经』)首先开创了道经、道书中兼论医药、摄养、内修延年的先声。

其次提倡了广采博收民间医疗成果，并‘下及庶人奴婢夷狄’的优良传统、再次反复重申医学乃救生死之术，最早提出了医德修养的重要性。最后强调医、药并重，并兼方、灸、及针、刺等诸法。”<sup>36)</sup>

在『典经』的理论体系里，医疗具有极其重要的地位，甚至可以说跟天地公事具有同等重要的地位：“吾行天地公事以来，在此东土朝鲜消除了其它劫灾，唯病劫尚未消除，在人们无暇顾及间，病劫犹如洪水席卷而至。”<sup>37)</sup>甌山认为，天地公事可以消除其他灾害，对于疾病的治疗只有通过医术才得以解决，『典经·济生』专门记载了甌山医世行为，涉及到按摩、符咒、草药等方面，引人注意的是里面记载很多通过符咒治病的事例。

如：“金允根患痔疾，深受其苦达数十年。到癸卯年三月因再也无法支撑而卧床不起。上帝深悯其苦，令其每日早上诵读侍天咒七遍。允根依遵，病情有了转机，不久便痊愈。”<sup>38)</sup>又：“上帝命其躺卧在平床上，抚摸其腹，又令亨烈诵读如下几行文字。昌汝滯食便痊愈。其文曰：调来天下八字曲，泪流人间三月雨。葵花细忱能补袞，萍水浮踵频泣玦。一年明月壬戌秋，万里云迷太乙宫。清音蛟舞二客箫，往劫乌飞三国尘。”

『太平经』也有通过符咒治病的方法，『太平经』有『神祝文诀』专门说明神祝的作用。神祝，是天上神仙传授给世人的一种特殊语言，具有治疗疾病

34) 『太平经』，第96页。

35) 『典经』，权智1-11，第291页。

36) 丁贻庄：「试论“太平经”中的道教医学思想，『宗教学研究』第3期(1987年)。

37) 『典经』，公事1-36，第110页。

38) 『典经』，济生7，第317页。

的功能。“天上有常神圣要语，时下授人以言，用使神吏应气而往来也。人民得之，谓为神祝也。祝也祝百中百，祝十中十，祝是天上神本文传经辞也。其祝有可使神依为除疾，皆聚十中者，用之所向无不愈者也。”<sup>39)</sup>

『太平经』和『典经』两者成书年代相隔甚远，对社会理想的构想存在着诸多相似，这点难能可贵，但也存在着一些差别。『典经』常采用现代意义上的全球观看待问题，例如，在后天仙境的社会蓝图中，就有全世界都使用同一种语言的构想，这跟『太平经』是有明显区别的。

## 二、拯救之道——“解承负”与“解冤相生”

『典经』和『太平经』都是在基于满目疮痍、遍体鳞伤的社会，提出了具有一定相似性的社会理想。两者如何来解释此等社会现象？怎样拯救或改变此等社会现象以及实现它们社会理想？在这些问题上两者是否同样具有相似性呢？

### (1) 不和不通——解承负——三气相通

『太平经』认为世界的万事万物皆由“元气”所生，天地人皆为元气的产物，“元气与自然太和之气相通，并力同心，时恍恍未有形也，三气凝，共生天地。天地与中和相通，并力同心，共生万物。”<sup>40)</sup>“元气”分而生成“三气，成为构成事物的三要素：“元气有三名，太阳、太阴、中和。形体有三名，天、地、人。天有三名，日、月、星，北极为中也。地有三名，为山、川、平土。人有三名，父、母、子。治有三名，君、臣、民，欲太平

---

39) 『太平经』，第181页。

40) 『太平经』，第148页。

也。此三者常当腹心，不失铢分，使同一忧，合成一家，立致太平，延年不疑矣。”<sup>41)</sup>

事物都是由三种要素所组成的，三者相互结合，不可或缺，才有事物的存在和发展，因此，“三气”是否畅通，事矣天下祸福。“古者圣人治致太平，皆求天地中和之心，一气不通，百事乖错。”<sup>42)</sup>“今三气不善相通，太平安得成哉？”<sup>43)</sup>

那为什么会“三气”不相通呢？在『太平经』看来，万事万物皆有阴阳，『和合阴阳法』：“自天有地，自日有月，自阴有阳，自春有秋，自夏有冬，自昼有夜，自左有右，自表有里，自白有黑，自明有冥，自刚有柔，自男有女，自前有后，自上而下，自君有臣，自甲有乙，自子有丑，自五有六，自木有草，自牝有牡，自雄有雌，自山有阜。”<sup>44)</sup>如果阴阳不和或者阴阳失调，则起灾祸：“天地阴阳，内独尽失其所，故病害万物。帝王其治不和，水旱无常，盗贼数起，反更急其刑罚，或增之重”<sup>45)</sup>。如果阴阳和合，产生新事物，“阴阳相与合乃生。”<sup>46)</sup>

这也就是『太平经』“两半共成一”的思想，“夫大神不过天与地，大明不过日与月，尚皆两半共成一。夫天地各出半力，并心同欲和合，乃能发生万物。昼夜各半力，乃成一日。春夏秋冬各出半力而成一岁。月始于西，长而东，行至十五日名为阳，过十五日消，名为阴。各出半力，乃成一月也。男女各出半力，同志和合，乃成一家。天地之道，乃一阴一阳，各出半力，合为一，乃后共成一。故君与臣合心并力，各出半力，区区思同，乃成太平之理。”<sup>47)</sup>在『太平经』看来，万物皆有阴阳，阴和阳各出一半力，就导致新事物的产生，如果阴阳失调，意味不能产生新事物，例如，父、母

41) 『太平经』，第19页。

42) 『太平经』，第18页。

43) 『太平经』，第20页。

44) 『太平经』，第728页。

45) 『太平经』，第23页。

46) 『太平经』，第678页。

47) 『太平经』，第715-716页。

各代表阴和阳，如果父母不结合，就没有了子的存在，即代表“人”三个要素的父、母、子“三气”不相通，从而导致了相关的问题。

因此，阴阳失衡也是通过“三气”不相通表现出来的，在『太平经』里关于社会灾难形成的原因更多表述为“三气”不相通。“太和即出太平之气。断绝此三气，一气绝不达，太和不至，太平不出。阴阳者，要在中和。中和气得，万物滋生，人民和调，王治太平。…今三气不善相通，太平安得成哉？”<sup>48)</sup>因此，实现“太平世道”关键在于“三气相通”，『太平经』卷四十八『三合相通诀』说道：“元气与自然太和之气相通，并力同心，时怳怳未有形也，三气凝，共生天地。天地与中和相通，并力同心，共生凡物。凡物与三光相通，并力同心，共照明天地。凡物五行刚柔与中和相通，并力同心，共成共万物。四时气阴阳与天地中和相通，并力同心，共生生天地之物利。孟仲季相通，并力同心，各共成一面。地高下平相通，并力同心，共出养天地之物。蠕动之属雌雄合，乃共生和相通，并力同心，以传其类。男女相通，并力同心共生子。三人相通，并力同心，共治一家。君臣民相通，并力同心，共成一国。此皆本之元气自然天地授命。凡事悉皆三相通，乃道可成也。”<sup>49)</sup>

那么是什么原因导致不和不通呢？就在于人的不当行为所引起的冤结，此点很多学者已经注意到，“甌山教的真谛在于解冤思想。这一理论源于巫俗的‘解恨’概念，很早就出现于同样以巫俗为发生论基础的民间道教思想之中。『太平经』中，多处将怨恨的积结‘冤结’视为世界上所有不和谐与不合理的根源，这种冤结的化解即是解冤结。”<sup>50)</sup>但事实上，相对于“解冤结”，『太平经』更强调“解承负”。他们两者之间有什么关系？首先，我们看看“冤结”和“承负”的关系。

承负，“承”是相对前人而言；“负”是相对后人而言，简单的说，今人的

48) 『太平经』，第19-20页。

49) 『太平经』，第148-149页。

50) [韩]郑在书，『韩国道教的固有性』，『韩国传统思想的特性研究』（城南：韩国精神文化研究院，1995年），204-205页。

祸福是有前人所造成的，今人言行会殃及或造福后人。“今天师比为暗蒙浅生具说承负说，不知承与负，同邪异邪？然，承者为前，负者为后；承者，乃谓先人本承天心而行，小小失之，不自知，用日积久，相聚为多，今后生人反无辜蒙其过谪，连传被其灾，故前为承，后为负也。负者，流灾亦不由一人之治，比连不平，前后更相负，故名之为负。负者，乃先人负于后生者也；病更相承负也，言灾害未当能善绝也。”<sup>51)</sup>

那冤结是怎么形成的呢？『太平经·五事解承负法第四十八』里面就有许多具体的例子说明此问题。“今一师说，教十弟子，其师说邪不实，十弟子复行各为十人说，已百人伪说矣；百人复行各为十人说，已千人邪说矣；千人各教十人，万人邪说矣；万人四面俱言，天下邪说。又言者大众，多传相征，不可反也，因以为常说。此本由一人失说实，乃反都使此凡人失说实核，以乱天正文，因而移风易俗，天下以为大病，而不能相禁止，其后者剧，此即承负之厄也，非后人之过明矣。后世不知其所由来者远，反以责时人，故重相冤也；复为结气不除，日益剧甚，故凡二事解，真人复更明听。”<sup>52)</sup> 假如一位老师所教为邪说，其弟子所传授的知识皆是邪说，这样一传十，十传百，后人皆不知其由来，相互怨恨，结气日甚一日，导致了“冤结”。因此，可以说承负是因，冤结是果。

既然社会的灾难，是由“承负”或者“冤结”所造成的。因此，“解承负”是实现太平盛世的具体方法。“师既为皇天解承负之仇，为后土解承负之殃，为帝王解承负之厄，为百姓解承负之过，为万二千物解承负之责。”<sup>53)</sup> 更重要的是，在『太平经』看来，不同人的不当行为所引起的后果是有差别的，以君主为甚，“承负者，天有三部，帝王三万岁相流，臣承负三千岁，民三百岁。”<sup>54)</sup> 因此，实现太平世道的关键所在解“君主”之承负，甚至，著书的方士声称『太平经』是专写给有德君主看的，专为解除君主的承负而作的。“是

51) 『太平经』，第70页。

52) 『太平经』，第58页。

53) 『太平经』，第57页。

54) 『太平经』，第22页。

以天使吾出书，为帝王解承负之过。真人以吾道不与天相应，今但案吾文行之，不失铢分，立相应矣。是吾文大信，不力行以解冤结，天道安能默空相应乎？”<sup>55)</sup>又：“吾乃为天地谈，为上德君制作，可以除天地开辟以来承负之厄会，又不敢妄语，必得怨于皇天后土，又且负于上贤明道德之君，其为罪责深大也，真人知之耶？”<sup>56)</sup>

『太平经』从“元气”论出发，认为世界万物都是“元气”的产物。万物各禀阴阳，阴阳和合产生新事物。阴阳失衡，所造成的“不通”或“不和”是社会动荡、天灾人祸的原因所在，通过解承负或解怨结，可以调节阴阳，使得“三合相通”从而实现太平盛世。

## (2) “相克”—解冤—“相生”

『典经』认为，人间的灾难由于“失度”所致，“上帝认为三界错乱源于冥府之乱，故须改定冥府之相克度数。唯如此，深陷于否劫之神明与苍生才得以相生，大势终得扭转。”<sup>57)</sup>只有调整“相克度数”才能解救深陷于否劫的神明和苍生，因此颯山降临人世间的主要任务也就是“匡定天地度数”。“故上帝降临世间，匡定天地度数，调化神明，解万古冤恨，立相生之道，开启后天仙境，调解神道，确立不可动摇之度数，其后调化人事，故众生以上帝为天帝，倍加敬仰。”<sup>58)</sup>之所以要调解或改变天地之度数，由于先天的度数处于一种“相克”的状态，“至今三界之未得开辟，唯先天相克支配人间，世间积累怨恨，天地人三界相隔绝，世间灾祸横生之故也。”<sup>59)</sup>

“相克”的状态的有诸多表现，首先是“冥府”的相克状态。“上帝认为三界错乱源于冥府之乱，故须改定冥府之相克度数。”<sup>60)</sup>其次是人间“积累

---

55) 『太平经』，第165页。

56) 『太平经』，第83-84页。

57) 『典经』，预示10，第339页。

58) 『典经』，预示9，第339页。

59) 『典经』，预示8，第338页。

怨恨”。世间所累积的“怨恨”从人类有记录之初便已开始，人类的灾难也肇始于此。“人类有纪录之初就积有冤，冤史初章之尧之子丹朱之冤若得解除，之后数千年间所积冤结便可得解。尧以丹朱不肖，嫁二女于舜，并托付天下。丹朱因此怀冤，使舜死于苍梧，使二女溺沉于潇湘江。从此冤之根深结于世间，代代相续，冤种遍撒，时至今日积冤充斥天地间，导致人类行将毁灭。”<sup>61)</sup> 人类的冤结，从尧舜就开始，代代相续，会导致人类的灭亡。这点也是『太平经』所讲的“承负”，『太平经』认为，人类自古就相继有了承负，导致了后事的流灾。“中古以来，多失治之纲纪，遂相承负，后生者遂得其流灾尤剧，实由君臣民失计，不知深思念，善相爱相通，并力同心，反更相愁苦。”<sup>62)</sup>

如果说“相克”原因的话，那么“解冤”就是解决办法。“上帝又道：‘因地气尚未得统一，故生活于地球上的人类，所思有异而反目争斗。若消这一矛盾对立现象，应通过解冤来调化万古神明，匡定天地度数。此公事得成，则天地开辟，展现后天仙境。’”<sup>63)</sup> 解冤的目的是为了使得事物从“相克”状态向“相生”的状态转变。甌山所要建立的“后天仙境”就是一种“相生”的状态。因此从现实的苦难到理想社会的建立，『典经』存在着失道—相克—积冤—解冤—相生的内在逻辑。

『太平经』和『典经』都认为社会的灾难都是由于一种“不通”或者“相克”的原因所造成的，因此消除灾难的方法在于“解冤相生”、“解承负”或“解冤结”，最终建立起“太平世道”和“地上天国”。虽然两者具有诸多的相似性，但也存在一些差异。其一，『典经』认为“相克”的状态，是先天存在的一种状态，“上帝对金亨烈道：‘在先天，人与世间万物皆为相克之理所支配，世间怨恨日积月累，错综复杂地充斥于三界之中。天地失其常道，各种灾祸丛生，世间暗无天日。…’”<sup>64)</sup> 『太平经』则认为是人的行为不当所引

60) 『典经』，预示10，第339页。

61) 『典经』，公事3-4，第131页。

62) 『太平经』，第151页。

63) 『典经』，公事3-5，第131页。



起的，也可以说，前者强调一种自然因素，后者认为是一种人为因素，因此，甌山作为救世主的任务就是改变先天“失度”、“相克”的状态，建立“相生”的后天仙境。『太平经』则主要是从“人”的角度出发，认为“人”的过失所造成的“承负”是天下动乱的因素，特别是君主的过错。

其二，在拯救顺序上，两者存在着截然不同的顺序。『典经』认为，世间的灾祸是先天的“相克”状态所引起的，因此，通过公事改变先天此种相克状态，尤其是神界的状态，人世间的灾祸自然得以解除。“不论大小事应由神道解冤，若能事先稳固度数并加以调化，人事便以神道为范实现自我达成，这便是三界公事也。”<sup>65)</sup>“因冥府发生错乱，世间随之混乱不堪。故冥府公事完成，则世间万事皆可得解。”<sup>66)</sup>

从举行公事我们可以很清楚地看到这点：“因行此公事，众饿莩神将皆升至天上，世间不再有饥馑，饿莩神灾祸将逐渐消失。”<sup>67)</sup>大巡真理会认为，地上的饥荒、灾祸直接由于饿莩神所导致，因此，通过公事，把它们送上天，饥荒灾祸就可以得到消除。“自我行天地公事起，一切饿莩神皆被赶到天上，今后百姓在也不会因饥馑饿死。”<sup>68)</sup>『太平经』认为人是造成灾害的主要原因，例如在阐述男女平等问题时，认为当时社会重男轻女，贱杀女子，会导致阴阳失调，进而绝断地气，导致天灾人祸。“天道法，孤阳无双，致枯，令天不时雨。女者应地，独见贱，天下共贱其真母，共贼害杀地气，令使地气绝也不生，地大怒不悦，灾害益多，使王治不得平。”<sup>69)</sup>因此“人”是解除灾难的关键，“依据『太平经』的世界观，只有人特别是君主施行正道，才能构建出太平世界。”

---

64) 『典经』，公事1-3，第97页。

65) 『典经』，公事1-3，第97页。

66) 『典经』，公事1-5，第98页。

67) 『典经』，预示11，第339页。

68) 『典经』，权智1-8，第289页。

69) 『太平经』，第34页。

### 三、结语

『典经』和『太平经』在构建社会理想问题上，无论从社会背景、拯救方式、还是终极目标都具有很强的相似性。在社会背景上，都是根源于政治腐败、经济处于崩溃边缘、民不聊生的社会境况，并认为此等动荡是由“相克”或者“不相通”的原因所造成的，但是『典经』认为“相克”是一种先天的状态，并且只有通过救世主才能得以拯救，而『太平经』主要认为是由人的不当行为所造成的，因此只有从人身上下功夫。在拯救方法上，两者都认为解决问题的关键在于“解冤”或“解承负”(或解冤结)，特别是解除人类历史最初的怨恨，这点是极为相似，甌山以尧和丹朱的素材作为人类历史怨恨的根源，试图通过解冤丹朱来消除人间的怨恨，而『太平经』则把前人或者先王的不当行为所形成冤结，作为解承负或者解冤结的重点，通过对不同事物、不同层次的解冤或解承负使万物回到“相生”或“三气相通”的状态。

但在拯救顺序上，存在着一定差别，『典经』认为通过对“神”的解冤，人的冤结自然得以解除，相反，后者认为社会的灾难是一种人为因素，也就是人的承负，因此只有通过解除人身上的承负，特别是作为人主的帝王。在社会理想上，“后天仙境”或“太平世道”都是一个远离战争灾难、平等、公正的社会，两者都具有很强的人本主义精神，要求打破人与人之间的差别和隔阂，恢复人本来应有的权利，尤其引人注意的是两者都是基于阴阳平衡理论来论述男女平等问题，这些对当今消除种族歧视、妇女歧视等问题都有启迪意义。

## 【参考文献】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大巡指針』,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
- 王明编,『太平经合校』,北京:中华书局,1960年版。
- 丁贻庄,「试论『太平经』中的道教医学思想」,『宗教学研究』第3期,1987年。
- [韩]李元淳等著 詹卓颖译,『韩国史』,幼狮文化事业公司,1987年版。
- [韩]李浩哲,「韩国甑山教思想解析」,『宗教学研究』第1期,2006年。
- [韩]郑在书,「韩国道教的固有性」,『韩国传统思想的特性研究』,城南:韩国精神文化研究院,1995年版。
- [韩]车瑄根,「现代韩国的神仙世界论-以大巡真理会的神仙世界为中心」,『东亚道文化国际学术研讨会-东亚道文化中的神仙思想论文集』,2012年版。
- [韩]车瑄根,「『太平经』的解冤结与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之比较研究」,『道与东方文化-东亚道文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北京:宗教文化出版社,2012年版。

■국문요약■

## 『전경』과 『태평경』의 사회이상에 대한 비교 연구

리하이린(李海林)

중국서남민족대학

『태평경』과 『전경』은 저술된 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지만 사회이상의 구상적 측면에서 매우 큰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태평경이 추구하는 ‘태평세도’와 『전경』에서 언급된 ‘후천선경’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증산께서는 ‘해원상생’이라는 구제의 방법을 통해, ‘후천선경’ 혹은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하셨는데, 이는 당시 민중의 심리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후 대순진리회에서는 ‘후천선경’을 이루는 것을 종단의 목표로 삼고 있다. 구제 원리의 측면에서 『태평경』은 ‘해원결’이나 ‘해승부’를 통해 ‘삼기상통’(三氣相通)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는 『전경』의 해원상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중외고금에서 사회이상 실현을 논하는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의식에 대한 걱정이 없고, 전쟁과 재해가 사라지며, 백성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태평경』과 『전경』의 인본주의 사상, 남녀평등, 불로장생에 대하여 유사점을 비교해 보았다. 한편으로 양자는 차이점도 지니고 있는데 『전경』에서는 현대적 의의를 바탕으로 전지구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후천선경이라는 사회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에 있어 이후 언어가 통일된다고 하는 내용은 태평경과 뚜렷한 차이점을 지닌다.

또한 구제의 순서에 있어 『전경』과 『태평경』의 차이점은 『전경』에서는 신의 해원을 통해 인간의 원결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며, 『태평경』에서는 사회의 재난이 인간, 즉 인간의 승부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봄으로 사람의 승부 특히 제왕의 승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제어** : 전경, 태평경, 후천선경, 태평세도, 해원상생, 해승부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12월 29일